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i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2월 중순 정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관련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진단이다

## 곧 닥칠 건강 보험료 폭등, 미 경제 전반에 부담 줄 듯

ACA 보조금 종료 시 보험료 두 배 이상 급등... 병원·기업·가계 연쇄 충격 우려  
12월 중순 의회 보조금 연장 표결 앞뒀... 전문가들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방의 건강보험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험료 폭등이 이미 불안정한 미국 경제에 '폭풍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는

각 가정이 피할 수 없는 고정지출인 만큼, 두 배 이상 인상될 경우 소비 축소와 고용 둔화를 거쳐 경기 침체 압력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료 예정인 이 보조금은 오바마케어

〈전체 기사 읽기〉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적용돼 온 확대 보험료 세금 크레딧(Enhanced Premium Tax Credits)으로, 가입자가 소득 대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비율을 크게 낮춰주는 핵심 장치였다. 지난 43일간 지속된 섣다운도 이 보조금의 연장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것이었다. 그

## 하버드대, 비트코인 폭락 직전에 5억 달러 투자...최근 상승에도 손실

3분기 보유액 거의 5억 달러...올해 금등 뒤 급락 맞물리며 손실 불가피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가 지난 분기 비트코인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 직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미국 최고 부자의 학교가 큰 손실을 봤다. 하버드는 과거에도 기금 투자면에서는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뒀은 바 있다.

하버드는 3분기 보고서에서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Shares Bitcoin Trust ETF, IBIT) 보유액을 약 5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렸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분기 들어 20% 이상 떨어지며 월가부터 개인 투자자, 심지어 미국 대통령의 밌코인 보유자까지 여파를 받고 있다.

만약 하버드가 10월 초 가격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매도했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거나 소폭 이익을 거둘 수도 있었다. 실제 매입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3분기에 매입한 490만 주를 모두 보유하고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29일 앤도버에서 열린 연방 선거지시 모임에서 덴 고 하원의원 후보, 김성혁 목사, 에스더 김 검사

# 덴 고, 2026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범식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한국계 덴 고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앤도버 소재 더 샤토 연회장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매사추세츠 제6선거구 민주당 예비경선 출범식과 연말 파티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연방 노동부장관 비서실장을 비롯해 고 후보를 지지하거나 함께 정치 현장을 경험해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가족과 친지, 지지자 등 약 100여 명이 모여 그의 출마를 축하했다. 조용한 정치 행보를 이어오던 고 후보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재도전에 나선 만큼 현장 분위기는 기대감과 환호로 가득했다.

이날 연설에서 고 후보는 미국이 다시 강력한 반 이민 정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한국계와 레바논계의 아들이고, 독일·아일랜드계 혈통을 지닌 아내와 자녀들을 둔 이민자 가정의 구성원”이라며 “연방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보험료 부담, 복지 혜택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혁牧사는 7년 전 고 후보가 불공정한 개표 논란 속에서 단 수십 표 차로 석패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고 후보는 이미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모금액도 출마를 선언한지 한달 만인 지난 10월말 기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민주당 예비경선에는 많은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베트남계 트램 누엔 매사추세츠 주하원의원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 시민협회 영리더십심포지움(YS), 송년의밤 12월 20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미시민협회(KACL, 회장 린 다챔피언)가 2세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는 영리더십심포지움(YS) 및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렉싱턴 엘크스(ELKS)클럽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사회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문어워즈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5시부터 시작되는 올해 YLS는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동시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경험과 대처방법 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연사들은 매리언 라이언 미들섹스 지검 지검장, 샘김 변호사이자 목사 그리고 에스더 김 검사보 등으로부터 법조계에서 경력을 바탕으로 불링, 헤이징 그리고 음주 등의 문제를 다룬다. 심리상담가인 양미아 시민협회 이사장 및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로부터 이와 관련된 우울증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영리더십심포지움은 무료이며 관심 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YLS에 관한 문의는 617-299-0294에 할 수 있다.

YLS 행사가 끝난 후 7시부터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문어워즈 시상식 및 저녁 식사가 개최된다. 시민협회는 올해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 부문은 올해의 커뮤니티 단체, 올해의 기업가 또는 비즈니스, 10년을 이끌어온 자원봉사자, 올해의 동반자(Ally), 30세 이하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떠오르는 리더 그리고 올해의 예술가 등 총 여섯 가지다.

밤 8시부터는 11시까지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공동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댄스파티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DJ 피치(Peach)가 흥겨운 음악을 담당한다. DJ 피치는 지난해 MFA에서 열린 에일리 공연 당시 DJ로서 큰 활약을 한 바 있다. 이날 송년 파티에서는 경품추첨으로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입장료는 어른 \$100, 시니어 \$75, 학생 \$50(학생증 제시 요망)이다.

티켓은 다음의 링크에서 구입가능하다.

티켓: <https://www.eventbrite.com/e/holiday-party-with-dj-peach-tickets-1892667061129>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벌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매사추세츠 저소득 가정 난방 지원 예산 집행 재개

## 힐리 주지사 “트럼프 행정부 한 달 넘게 국민을 추위 속에 방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저소득층 난방 지원 프로그램(LIHEAP·주내 명칭 HEAP)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난방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예산을 뒤늦게 집행함에 따라 모든 신청 처리절차를 재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원래 11월 초에 배정되는 것이 관례지만 연방 정부 섯다운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지연으로 한 달 넘게 지급이 멈춰 있었다.

힐리 주지사는 “한 달 넘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가정을 추위 속에

기다리게 했다” 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라도 지원금이 풀려 다행이다. 주정부는 신청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우리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연방 자금 집행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온 에드 어거스터스 장관과 주거복지부팀에게 감사한다” 고 덧붙였다.

에드 어거스터스 주거·생활복지부 장관도 난방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겨울철 가정 안전을 지키는데 난방 지원은 핵심 도구다. 많은 주민들에게 HEAP은 따뜻한 집과 난방, 식비, 약값 사이의 고통스

〈전체 기사 읽기〉

러운 섯택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망” 이라며 “연방 자금이 풀린 만큼 우리 부처와 지역 파트너들은 노인,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정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업무를 재개했다” 고 말했다.

HEAP은 매년 매사추세츠 내 15만 가구 이상, 약 30만 명이 겨울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올해는 연방 섯다운 이후 행정부의 지연으로 11월 13일 정부 재가동 후에도 3주가 가까이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힐리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연방 지원이 멈춘 기간 동안 주정부는 지난해 남은 연방 기금을 활용해 긴급 난방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 지원했고, 매사추세츠 공공요금국(DPU)은 단전·단수 중단 유예 기간을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4월 1일까지로 연장해 주민 보호에 나섰다.

현재 모든 HEAP 자격 대상자(MA지역 중위소득 60%미만, 4인가족 \$9,573미만)들은 온라인으로 난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 <https://www.toapply.org/MassHEAP>



# 매사추세츠 독감 환자 급증...새 변이 확산이 주요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주 전역에서 독감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 당국이 2일 경고했다.

연말 여행과 각종 모임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1월 16일로 끝난 주간 기준 독감 관련 입원비율은 0.4%로, 11월 초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험실 확진 건수도 크게 뛰어 11월 16일부터 22일 사이 450건이 보고되며 전주 251건에서 급증했다.

당국은 특히 ‘서브클레이드 K(Subclade K)’ 로 불리는 새로운 독감 변이가 현재 미국 전역과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확산하며 감염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이 여전히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백신이 매년 약 24만 건의 입원을 예방

〈전체 기사 읽기〉

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키아메 마하니아 매사추세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중증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질병에 취약한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일” 이라며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응급실과 병원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든다” 고 말했다.

지난 독감 시즌 매사추세츠는 큰 타격을 입었다. 2024-2025 시즌 독감 관련 사망자는 46명에 달했으며, 올해 시즌은 현재까지 4명으로 집계됐다.

보건 당국은 독감 예방을 위해 다음 기본 수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주민의 독감 백신 접종, ▪아플 때는 외출 자제, ▪기침·재채기 시 올바른 가리기, ▪손 씻기와 실내 환기 강화
- hsb@bostonkorea.com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리얼ID 없는 항공 여행객, 2월부터 45달러 수수료 부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미국내 항공여행시 리얼아이디 (REAL ID)가 없는 승객들은 내년 2월부터 4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2일 발표했다.

리얼 ID는 올해 5월부터 의무화되었지만, 그동안 승객들이 추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경고만 받으면 탑승이 허용되었다. 국토안보부(DHS)는 현재 승객의 94%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는 여행객들이 리얼 ID를 발급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리얼 ID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마련된 강화된 신원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연방 표준의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다.

이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대부분 주에서 일반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보다 더 많은 서류를 차량관리국(DMV)에 제출해야 한다. 리얼ID는 원래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어 왔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리얼ID나 여권 등 다른 승인된 신분증이 없으면 18세 이상 국내선 승객은 TSA의 대체 신원 확인 시스템인 'Confirm.ID' 를 이용하기 위해 환불 불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TSA는 수수료를 낸다고 해서 신원 확인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승인될 경우 신원 확인은 10일간의 여행 기간에 대해 유효하다.

### 〈전체 기사 읽기〉

수수료는 공항 도착 전에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항에서도 검색대 진입 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최대 30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한다.

TSA는 당초 수수료를 18달러로 제안했으나, 대체 신원 확인 프로그램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파악되어 금액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군 신분증, 영주권 카드, 연방 인정 부족의 사진 신분증도 인정되는 대체 신분증에 포함된다. TSA는 또한 애플 월렛, 구글 월렛, 삼성 월렛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 신분증도 미국내 250곳 이상의 공항에서 허용하고 있다.



## 뉴햄프셔, 체납자에 최대 이자·벌금 468달러 감면...한시적 세금 사면 시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전체 기사 읽기〉

기자= 뉴햄프셔주가 미납 세금 회수를 위해 2월 15일까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세금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 이자 50% 감면으로, 체납자는 원금과 절반의 이지만 내면 된다.

주 정부가 제시한 대표 사례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1,000달러를 체납한 사람은 원래 1,586달러를 내야 하지만, 사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118달러로 해결할 수 있어 총 468달러가 할인된다.

주 정부는 세금 사면으로 최소 5백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회수 대상 미납세는 총 8,320만 달러

이며, 이 중 대부분은 기업체가 체납한 6천1백만 달러 규모 사업세다.

투자소득세(I&D tax)는 지난해 폐지됐지만, 이전 연도 미납분이 남아 있어 959개 계정이 총 3백만 달러를 체납 중이다. 이들 역시 이번 사면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세수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하며, 수년간 신고를 하지 않은 체납자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b@bostonkorea.com

# 공장 임차하실분 찾습니다

위치: Hudson, Industrial Dr. MA 01749

대지: 약 20,000 sq ft, 주차 약 20대

건평: 약 11,400 sq ft 2층 건물 (320평정도)

1st Floor : Conference Rm, Robby, Receptionist, Mens Rm, Ladies Rm, Office(2), Cafeteria, Stock Rm(2), Compressor Rm, Machine Shop, Overflow area, Incoming Inspection, raw material stock Rm.

2nd Floor : Bulk pack, Gowning Rm, Hall way, Manufacturing Clean Rm(1/100,000class), Office(5)Lobby, File Rm, Engineering Rm

현재 의류기기 제조 시설 운영중이며, 화장품, 바이오 등 공장사용 가능함. 10마력의 콤투레스 2대 및 공조 파이프 시설 2층까지 연결되어 있음. 저렴한 임대차 계약(약 \$8,000/M), 자사와 공용사용(일부사무실) 협의가능

문의 : Ms.Maria Moura 978.567.9033, Alex Suh 508.239.9030(문자), kaokao: andreisuh email: andreisuh@naver.com, alex@telemedsystems.com

##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https://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보스톤 시, 내년 1월부터 주택 재산세 13% 인상 예고

### 상업용 건물 가치 하락 지속...세입자·은퇴자 부담 급증 우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는 내년 1월부터 보스톤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Property Tax)가 약 13% 인상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팬데믹 이후 상업용 건물 가치가 급락하는 반면 주택 가치가 꾸준히 오르면서, 현행 주법 아래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내년 평균 약 780달러의 세금 증가를 감당해야 한다. 최종 세율은 시가 제출한 자산 평가가치를 매사추세츠 수입국(DOR)이 승인하는 즉시 확정된다.

이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상업용 건물 가치의 추가 하락이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6% 떨어진 반면, 주택 가치는 2%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상업용은 5% 하락, 주택은 3% 상승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우 시장은 공실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기업 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구조적인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내년부터 보스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평

균 4.4%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아 평균 21만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금융지구의 경우 대형 빌딩은 35만 달러 이상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행 주법은 상업용 세율을 주거용보다 크게 올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주택 소유자의 부담 증가를 막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매사추세츠의 핵심 도시인 보스톤의 상업용 세율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정치인들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주의회의 논리이며 타당한 견제장이다.

우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는 특별법안(Home Rule Petition)을 상정했으나, 모두 상원에서 막혀 표결조차 열리지 못했다. 우 시장은 “보스톤 시의회에서 세 번째로 통과된 안건이 아직도 주 의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사우스보스톤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주 상원의원 닉 콜린스가 표결을 막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첫 안에서 핵심 재정 자료가 조작, 은폐됐고, 올해도 시가 중요한 재정 정보를 숨기고 있다” 고 반박했다.

〈전체 기사 읽기〉

이와 함께 콜린스 의원은 “시가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 관련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 며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스톤 시는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어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 시 예산 46억 달러 중 70% 이상이 재산세에서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다.

우 시장은 시 재정 운영도 긴축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3일 보스톤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인력 채용 동결을 지시했으며, 각 부처는 내년 2027 회계연도 예산을 올해보다 2% 줄여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곧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는 점이다. 우 시장은 1월 청구서에는 새 세율이 지난 분기분까지 소급 적용되어 “13% 인상이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26% 증가처럼 체감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특히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노인과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될 것” 이라며 “날씨가 추워지고 난방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가 우려된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 미셸 우 시장 캐나다 출장비 1만 3천불 ... 알고 보니 일반석 이용

### 글로벌은 ‘납세자 부담’ 뉘앙스 강조했지만 실제 경비는 해외 출장 중 최소 수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글로벌이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의 노바스코샤 출장 비용을 공개하며 납세자 부담을 강조하는 헤드라인을 달았지만, 가족과 함께 이동하면서도 일반석을 이용했고, 경비 역시 해외 공식 일정 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 며칠 후인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남편, 세 자녀, 직원들과 함께 노바스코샤를 방문했다. 이번 여행의 공식 목적은 매년 보스톤 커먼에 세워지는 45피트 높이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트리는 1917년 할리팩스 폭발 당시 보스톤이 신속하게 구조 지원을 보낸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노바스코샤가 매년 보내오는 선물로, 양 지역 간 오랜 우정을 상징하는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아왔다.

출장비는 총 13,367달러였으며, 이중 1만 1,283달러가 시 예산에서 지출됐다. 시장 본인의 왕복 항공권은 573.79달러였고 가족 동행 비용은 공식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행 보좌관, 경호 인력, 공원국 임시국장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고려하면 이번 비용은 해외 공식 출장비로는 상당히 검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전체 기사 읽기〉



나온다. 이렇다 보니, 논란의 초점은 비용 자체라기보다 글로벌의 보도 방식에 맞춰졌다. 실제 독자 댓글에서도 “이게 왜 뉴스인가”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 독자는 “이걸 스킨들로 보려면 너무 약하다(weak beer)” 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독자는 “이 정도면 매우 경제적인 출장인데 호스텔에 묵기를 바라는 건가” 라고 반문했다. 일부 독자들의 매 주말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낭비를 빗대기도 했다.

전통 행사 참석과 지역 외교 성격을 띤 이번 방문을 두고, 보스톤글로벌이 강조한 ‘납세자 비용 낭비’ 프레임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보스톤 교통체증 더 악화...전국 다섯 번째로 나쁜 도시 유지

### 올해 평균 83시간 운전자들 도로에서 허비 93번 사우스는 여전히 보스톤에서 가장 막히는 곳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교통체증이 올해 다시 악화되며 전국 최악 수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분석 업체 인릭스(INRIX)가 4일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 운전자들은 올해 평균 83시간을 교통체증 속에서 허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시간 증가한 수치다.

INRIX는 올해 보스톤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시라고 발표했다. 필라델피아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스톤은 체증이 증가했음에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갔다. 전 세계 순위에서도 12위로, 방콕, 로마, 멜버른보다 교통이 더 막히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INRIX에 따르면 이런 교통 체증

으로 인해 보스톤 운전자는 평균 1,529달러의 연간 비용(유류비, 생산성 손실)을 잃었으며, 도시 전체 경제적 손실은 29억 달러에 달했다.

보고서는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브레인트리 분기점(Causeway St.~Pilgrims Hwy.)까지의 93번 남행구간(I-93South)을 올해도 보스톤 교통난의 핵심 문제 지점으로 꼽았다. 이 구간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혼잡한 통근 구간으로 나타났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연간 81시간을 잃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109시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상위권이다.

보스톤·동부 매사추세츠·뉴햄프셔 일부를 포괄하는 광역 지역의 주민들은 56%가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며 8%는 카풀, 대중교통 이용은

**〈전체 기사 읽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교통정책 중 하나는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였다. 뉴욕시는 올해 1월부터 맨해튼 중심 업무지구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했고, 그 결과 교통량 감소, 대중교통 증가, 차량 속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INRIX는 “2024년에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구간 상위 25곳 중 5곳이 뉴욕에 있었지만, 혼잡통행료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그중 1곳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혼잡통행료 도입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해 타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가능성을 일축했고, 최근 상원 교통위원회 공동의장 브렌던 크라이튼은 “적어도 검토 정도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노이스터 눈비 후 이제는 북극한파... 기록적 추위

### 평년보다 20도에서 30도 낮은, 위험한 강력 한파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올 12월의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다. 비교적 온난한 겨울이 될 거라는 장기 예보와 달리 12월 들어 뉴잉글랜드는 노이스터에 이어 북극한파까지 차례로 맞게 된다.

4일 목요일 오후 늦게부터는 북극에서 강력한 한기가 뉴잉글랜드로 밀려오면서 강추위가 시작될 예정이다. 목요일의 시작은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각 뉴잉글랜드 주 일부 지역에 짧고 강한 스노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20-30마일로 강해지며, 체감온도는 훨씬 낮을 전망이다. 오후 늦게 부

**〈전체 기사 읽기〉**  
터 혹독한 북극 한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 시즌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평년보다 20도에서 30도나 낮아지며,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아침까지는 한 자릿수 또는 10대 초반 기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화씨 0도 이하 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보스톤권은 화씨 10~12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등교하는 아이들이나 출근하는 이들은 반드시 두 겹께 옷을 껴입어야 한다.

이 혹독한 추위는 약 24시간 정도만 지속되지만 다음 주 초 또 다른 북극 한파가 몰려온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중은치과, 중은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곧 닥칠 건강 보험료 폭등, 미 경제 전반에 부담 줄 듯

▶▶1면에 이어서  
러나 이 제도가 연말 사라질 경우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즉시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과 기업, 가계 전반에 광범위한 충격이 예상된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는 확대 세금 크레딧이 종료될 경우 2026년 보조대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14%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사실상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치솟는 셈이다. 이미 보험사들은 2026년 보험료 인상을 제출하며 중앙값 기준 18% 인상을 제시해,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됐다.

보험료 급등은 시장에서 건강한 가입자가 가장 먼저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도 낳는다. KFF의 정책분석가 엠마 와그너는 “보험료가 오르면 건강한 가입자들이 먼저 시장을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입자 풀의 위험도를 높이고, 보험사가 다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순환 구조—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준다. 보험료 상승으로 가입을 포기한 무보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으면, 병원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저소득 및 농촌 지역 병원, 커뮤니티 헬스 센터들은 인력 감축이나 서비스 축소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전국에서 산부인과·정신건강 서비스 축소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맞물린다.

기업 역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병원들은 무보험 환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더 높은 요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단체보험료 인

ACA 보조금 vs HSA 직접지급 비교표		
항목	ACA 보조금(보험료 세액공제)	HSA 직접지급(트럼프·공화당안)
기본 개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줌 (소득 기준)	정부가 현금을 개인 건강저축계좌(HSA)에 입금
지원금 흐름	정부 → 보험사 (소비자 보험료 감소)	정부 → 개인 계좌 (개인은 보험료 직접 부담)
보험 가입 유도 효과	보험료가 낮아져 젊은 층도 가입 유지	젊은 층은 “보험료 아까움” → 보험 탈퇴 가능성 높음
보험시장 안정성	건강한 사람까지 보험에 남아 리스크 분산 → 보험료 안정	건강한 사람 이탈 → 아픈 사람만 남음 → 보험료 폭등(데스 스파이럴 가능)
정치적 메시지 효과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지만 체감은 낮음	“정부가 당신에게 직접 돈 준다!” → 정치적 매력 큼
소비자 유연성	보험료·자기부담금 등 특정 용도만 가능	의사·병원·치과·약·안경 등 다양한 의료비 직접 지출 가능
단점	정부-보험사 구조가 복잡해 보험/공화당은 “보험사 퍼주기”라고 비판	보험료는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보험 가입률 감소 위험
고위험군 보호	고령·만성질환자도 적정 보험료 유지	고위험군 보험료 폭등 → 보험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보험료 안정으로 장기적 비용 구조가 예측 가능	젊은 층 이탈로 보험료 상승 → 정부 지원 확대 압박
수혜자 체감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정도	“정부가 나에게 현금 준다” 효과로 체감 강함
전문가 평가	시장 안정화·보험료 억제에 효과적	시장 불안, 역선택 증가, 보험료 폭등 가능성 크다

상으로 이어진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단체 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직원들이 ACA 보험에 의존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폭등한 보험료 부담이 임금·복지 요구증가로 전가될 수도 있다.

비록 미 의회가 12월 중순 건강보험 보조금 관련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26년 보험료 인상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인상을 제출한 만큼, 이 보조금(확대 세금 크레딧)이 유지되더라도 급등세가 크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와그너는 “보험료가 실제로 인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2027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분

석했다. 평균 114%에 달하는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와그너는 “이 정도 인상폭이면 가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 등 올해 연방 경제정책 변화로 소비심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고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조사업체 모닝컨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존 리어는 최근 “지금 은폭풍 전의 고요기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폭등이 그 ‘폭풍’을 앞당기는 결정적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하버드대, 비트코인 폭락 직전에 5억 달러 투자...최근 상승에도 손실

▶▶1면에 이어서  
있다면 최선의 경우에도 약 14%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7월 초 분기 최저가 기준으로 9,400만 달러에 매입한 물량이 현재는 2억5,50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초 대폭 상승하기 전에 2분기에 매입한 190만 주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하버드의 손실은 57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기금(endowment) 전체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9월 30일 기준 보고된 비트코인 보유액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쳤다.

주류 금융권에 깊이 스며든 비트코인

하버드의 이번 사례는 올해 큰 폭의 가격 상승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베팅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올해 한때 126,000달러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34% 상승했다가 최근 30% 이상 급락, 올해 수익분을 모두 되돌렸다.

하버드 기금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8.2%로 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비해 뒤처졌다. 하지만 현 CIO 나브 나베카(N.P. “Narv Narvekar”) 체제 8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6%로 개선됐다. 하버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점만 해도 과거의 보수적인 펀드 운영에서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024-2025 회계연도(6월 30일 종료) 기준 하버드는 11.9% 수익을 기록했으나, MIT(14.8%)와 스탠퍼드(14.3%)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른 대학들도 크고 작은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보고했지만 규모는 훨씬 작다. 브라운대는 1,400만 달러 블랙록 비트코인 ETF(IBIT)를, 에모리대는 5,200만 달러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ETF(G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 투자자는 버틸 수 있어... 암호화폐는 부적절한 투자 자산, 평가도

기금이나 연금처럼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기관의 경우 단기 평가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장이 회복될 여지가 있고, 필요하면 다른 자산을 현금화할 여력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적 연금 기금들은 2022년 암호화폐 폭락 직격탄을 맞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5배 이상 반등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암호화폐가 장기 보유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헤트필드 CEO는 “도박을 할 때는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아야 한다”며 비트코인 보유를 도박에 비유하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디어필드의 양키 캔들, 북미 매장 20곳 폐쇄... 900명 감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부매사추세츠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향초 제품을 생산해온 대표 브랜드 양키 캔들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매장 20곳을 폐쇄할 것이라고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모기업이 밝혔다.

양키 캔들을 소유한 뉴웰브랜드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브랜드에서 총 900명의 직원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직 및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수개월째 이어진 실적 부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경영진은 일부 원인이 관세 압박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직원 감원은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양키 캔들은 1969년 사우스해들리에서 창업해 1983년 디어필드로 이전했으며, 창립 이래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어왔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는 디어필드의 대표 매장 '양키 캔들 빌리

지' 를 포함해 총 15개 매장이 있으며, 생산·유통 시설도 지역 내에 위치한다.

이 회사는 특히 계절별(seasonal) 향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은 미슬토(Mistletoe), 레드 애플 리스(Red Apple Wreath) 등이 유명하다.

양키 캔들은 뉴햄프셔에서 9개, 로드아일랜드에서 3개의 매장을 운영하지만 어떤 매장이 폐쇄 대상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뉴웰 브랜드 대변인은 "이번 조정은 브랜드 매출의 약 1%에 해당하며, 오늘날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에 맞추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뉴웰은 이번 조치가 완전히 시행되면 연간 약 1억1천만~1억3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퇴직금 등 구조조정 관련 비용은 7천5백만~9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피터슨 뉴웰 브랜드 CEO는 10월

(전체 기사 읽기) 실적 발표에서 해외 매출 부진을 주요 역풍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관세로 인해 회사가 2025 회계연도에 1억8천만 달러의 비용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 교란이 소비자들과 소매업체의 단기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고 말했다.

양키 캔들 제품은 대부분 미국 웨이틀리(Whately) 시설에서 제조되지만, 뉴웰의 주방용 브랜드—크록팟과 미스터커피 등—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의존해 관세 영향으로 현금흐름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등 일부 주요 시장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한 뒤 해당 지역 매출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뉴웰은 2015년 양키 캔들을 132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사피, 러버메이드, 콜맨 등 여러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 패트리어츠, 자이언츠에 33대 15 완승... 10연승 질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자이언츠를 압도하며 33대 15로 승리, 10년 만에 첫 10연승을 달성했다.

12월 1일 월요일 팍스보로 질레트 구장에서 열린 먼데이나잇 풋볼에서 패트리어츠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패트리어츠는 경기 첫 드라이브에서 앤디 보레가레스의 필드골로 포문을 연 뒤, 자이언츠의 첫 번째 펀트를 리턴 전 문리시버 마커스 존슨스가 94야드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며 일찌감치 분위기를 압도했다.

드레이크 메이는 헌터 헨리에게 36야드 패스를 연결한 데 이어 케이슨 부테에게 3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1쿼터를 17대 0으로 마무리했다.

자이언츠는 2쿼터 초반 대리어스 슬레이튼의 30야드 캐치 앤드 런으로 첫 점수를 올리며 반격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패트리어츠는 바로 분위기를 되찾았다. 뉴욕이 필드골 시도 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자

(전체 기사 읽기) 이를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했고, 이어 메이는 카일 윌리엄스에게 절묘한 33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켰다.

윌리엄스의 터치다운 이후 이어진 킥오프에서 자이언츠가 공을 흘리자 패트리어츠는 다시 공격권을 얻어 필드골로 점수를 더했고, 전반 종료 전 2분 공격에서도 보레가레스가 추가 필드골을 성공시키며 30대 7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전 득점은 다소 주춤했지만 자이언츠가 30대 15까지 추격할 것이 전부였다. 패트리어츠는 4쿼터 보레가레스의 필드골로 다시 점수 차를 벌리며 33대 15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메이는 31회 중 24회 패스를 성공시키며 282야드, 2터치다운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번 승리로 패트리어츠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연승을 달성했다.

패트리어츠는 이번 주 휴식을 가진 뒤, 오는 12월 14일 오후 1시 홈에서 버펄로 빌스를 맞이한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한디맨 앤디**  
HANNO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JUNG KWAN JANG



정관장이 준비한

# 연말 선물보따리

행사 기간: 12월 5일 ~ 12월 31일

SALE  
UP TO 20%

\$200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0 이상 구매시 15% 할인

\$5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행사1



보자기 포장 제공

홍삼정 240g

홍삼정 리미티드 (3개입)

천녹, 달임액 구매시

행사2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NO.1 WORLD'S NO.1 GINSENG BRAND

125 125 YEARS OF QUALITY & PURITY

420 420 QUALITY & SAFETY TESTS

FIND OUT MORE



JUNGKWANJANG.US/  
f / KGCUS

보스톤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929.600.4880



## 보스턴 홀리데이 시즌의 매력, 빈티지 마켓부터 산타와의 특별한 만남까지

**(보스턴=보스턴코리아) 김유림 기자 =** 12월 보스턴 곳곳에서 펼쳐지는 홀리데이 마켓과 산타 이벤트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빈티지 아이템부터 수제 공예품까지 다양한 선물을 찾을 수 있는 플리 마켓과 홀리데이 페어가 시내 여러 곳에서 개최된다. 특히 프루덴셜 센터의 산타 방문 이벤트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한다.

이번 시즌 보스턴의 홀리데이 마켓들은 대형 쇼핑몰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역 아티스트들과 직접 대화하며 선물을 구매할 수 있고, 수제 제품의 스토리를 듣는 특별함이 있다. 각 이벤트마다 30개 이상의 벤더가 참여해 보석, 의류, 빈티지 아이템, 홈 데코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겨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핫 초콜릿을 마시며 홀리데이 쇼핑을 즐기고, 아이들은 산타 클로스를 만나 소원 리스트를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보스턴의 12월은 이처럼 다양한 홀리데이 이벤트로 가득하다.

### 섬머빌 플리 홀리데이 마켓

섬머빌 플리 홀리데이 마켓이 아츠 앤 더 아모리에서 12월 두 차례 개최된다. 13회째를 맞이하는 이 홀리데이 마켓은 두 개 층에 걸쳐 큐레이션된 빈티지 상품과 아티산 제품들로 가득 채워진다. 데이비스 스퀘어 커뮤니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이 마켓은 매년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전체 기사 읽기〉

방문객들은 빈티지 의류, 바이닐 레코드, 예술 작품,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 아티스트들의 수제 공예품도 함께 판매되어 선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대형 매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개성 있는 아이템들로 가득찬 이 마켓은 홀리데이 시즌의 완벽한 쇼핑 장소가 된다.

주소: Arts at the Armory, 191 Highland Avenue, Somerville, MA 02143

날짜: 12월 7일 (일)/12월 21일 (일)

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웹사이트: <https://www.thesomerville-flea.com/>

### 하버드 스퀘어 홀리데이 페어

하버드 스퀘어 홀리데이 페어가 두 주말에 걸쳐 케임브리지에서 열린다. 1986년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보스턴 지역의 오래된 전통 행사 중 하나다. 뉴잉글랜드 지역 장인들과 세계를 여행하는 수입업자들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친 마켓으로,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을 찾을 수 있다.

이 페어의 특별함은 제품을 만든 장인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탈로그나 온라인 쇼핑에서는 불가능한 연결감을 선물에 담을 수 있다. 훌륭한 사운드트랙과 함께 활기찬 대안적 마켓플레이스 분위기 속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공간이 된다.

주소: 1 Brattle Square, Cambridge, MA 02138

날짜: 12월 12일 - 12월 21일 (매주 금, 토, 일)

시간:

금요일 - 오후 12시 - 7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 오후 12시 - 6시

웹사이트: <https://www.harvardsquare-holidayfair.com/>

### 다운타운 보스턴 홀리데이 마켓

다운타운 보스턴 홀리데이 마켓이 서머스트리트 플라자에서 매주 목, 금, 토요일마다 열린다. 다운타운 크로싱 중심부에서 홀리데이 쇼핑을 완성할 수 있는 이 마켓은 다양한 아티산 벤더들이 엄선되어 참여한다. 보석, 목각 제품, 금속 조각, 음식, 양초, 의류, 홀리데이 테마 상품 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토요일에는 양카시사 팜이 라이브 알파카 세 마리를 데려와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알파카 울 제품도 판매한다. 캐롤러들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어 더욱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MBTA 교통 시스템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레스토랑과 역사적 명소들로 둘러싸여 있다.

주소: Summer Street Plaza, 10 Summer Street, Boston, MA 02110

날짜: 11월 28일 - 12월 21일 (매주 목, 금, 토)

시간: 오전 11시 - 오후 4시

웹사이트: <https://www.downtown-boston.org/event/downtown-boston-holiday-market-2/2025-12-13/>

### 산타 인 더 시티

프루덴셜 센터에서 산타 인 더 시티 이벤트가 12월 여러 날짜에 걸쳐 진행된다. 아이들은 산타의 백 배이 거실을 재현한 축제 분위기의 공간에서 산타 클로스를 만날 수 있다. 프루 브라운스톤의 스위트그린 건너편에 위치한 산타의 특별한 공간은 시즌 동안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아이들이 위시 리스트를 가져와 산타에게 올해 받고 싶은 선물을 말할 수 있으며, 특별한 기념 사진과 함께 많은 홀리데이 즐거움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사진 패키지는 30달러부터 시작한다.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주는 이 이벤트는 보스턴 홀리데이 시즌의 필수 방문 장소가 되고 있다.

주소: Prudential Center,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02199

날짜: 11월 29일 - 12월 20일 (매주 토요일)

시간: 오후 12시 - 6시

사진 패키지: 30달러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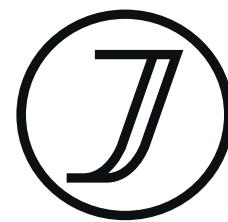
웹사이트: <https://www.prudentialcenter.com/experiences/events/santa-in-the-city-2/>

bostonkorean@hotmail.com



##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미국서 의원 주식거래 금지법 추진...양당서 100여명 공동 발의

## 하원 표결 위한 '심사 배제 청원' 절차도 개시

(서울=연합뉴스) 박민서 기자 =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 아래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의원들의 개별 기업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이들이 현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0명 이상이 이름을 올렸다.

신속한 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된다.

공화당 안나 풀리나 루나(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의원 주식거래 금지법'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심사 배제 청원이 하원 의원 과반(218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면 상임위 심사 없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지도부에 반기를 드

는 움직임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넘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의원과 민주당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성명에서 "지도부가 의회 주식 거래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지난달에도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거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성범죄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다수 이탈표가 나왔다.

다만 하원에서 이 법안이 상정, 의결되더라도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7월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지지한 공화당 인사는 조시 홀



안나 풀리나 루나 미 하원의원

리(미주리) 의원 한 명뿐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주식 거래에 관한 논란이 꾸준

히 제기됐다.

2012년 의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거래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한 '의회 내부정보 이용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로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13명의 의원이 총 9천 261건의 주식 거래로 약 7억600만 주를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mshkwak@yna.co.kr

#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 ↓ ...고용약화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11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외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 지표가 나왔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 프로세싱(ADP)은 11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5만3천명 감소)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1월 중 고용이 4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ADP 집계 민간고용은 지난 6월에 이어 8~9월에도 2개월 연속 감소하

며 고용 약화를 시사해왔다.

대다수 업종에서 고용이 약화한 가운데 전문·사업서비스(2만6천명), 정보(2만명 감소), 제조업(1만8천명 감소) 부문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 소형 사업체 고용이 12만명 감소해 11월 고용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50명 이상 사업체는 고용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4%를 나타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주들이 신중해진 소비자 및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 대응하면서 최근 고용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며 "11월 고용 둔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가 감소를 주도했다"라고 말했다.

ADP 민간 기업 고용지표는 민간 정보업체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로 미 정부가 공식 집계한 비농업 고용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방정부 셋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10월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11월 고용보고서도 당초 스케줄보다 지연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ADP 민간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ghwan.co.kr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정부계약 따고, 규제 완화되고...트럼프 아들이 손대면 다 '대박'

## 트럼프 · 업체 측 "특혜없었다" 손사래...전문가들은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주니어가 투자하는 회사들에 행운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따내거나, 규제 완화 혜택이라는 선물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

프 주니어는 10억 달러(약 1조4천6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1789캐피탈에서 파트너 직을 맡고 있다.

1789캐피탈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만 22개 기업에 투자했다.

이 중 소규모 회토류 스타트업 벌컨 엘리먼츠는 미 국방부로부터 6억2천만 달러(약 9천1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됐다.

이는 국방부 전략자본실(OSC)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출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의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는 국방부와 4천500만 달러(약 6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로켓 스타트업 파이어호크 에어로스페이스와 양자컴퓨팅 기업 사이퀀텀은 미 공군과 각각 1천만 달러(약 146억 원) 이상의 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 의회 윤리국의 법률고문 출신인 케드릭 페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이 또 목격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 부친이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추진

하는 와중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해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일가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동 국가들과 여러 건의 거래를 성사했다.

특히 지난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에 방문하기 전날에는 트럼프 일가와 사우디의 자본이 합작으로 몰디브에 고급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업체 측은 투자와 정부 계약에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 회사와 정부 간 협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정부도 계약 과정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나 부동산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일가의 입장이다.

그러나 페인 전 의회 윤리국 법률고문은 "대통령은 자신이나 가족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직위를 이용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 조차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주니어(좌측)와 차남 에릭(중앙)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 닷컴새 짜 쿠팡사태에 떠는 소비자...해외로그인·무단결제 시도도

## "3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여파...업계 전방위 점검 탈팡·소송 움직임도 본격화...전문가들 "최악 상황 대비해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조민정 신 선미 기자 = 쿠팡이 3천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한 지 닷새째가 됐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상황에서 쿠팡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전자 금융사기(피싱)와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서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와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이 이어졌다. 제보가 잇따르고, 탈퇴·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 계정 로그인·결제 시도 잇따라...소비자들 '탈팡'·소송 움직임 속도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본인의 쿠팡 계정에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있었다는 게시글이 많았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기기로 쿠팡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확인돼 쿠팡 고객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로그인 기록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필리핀 등 해외로 나타나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표시된 사

례도 여러 건이었다.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쿠팡의 설명과 달리 '알 수 없는' 로그인 시도가 셀 수 없이 이뤄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쿠팡 계정에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연동해 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고 쿠팡 사태를 제외하면 결제 정보가 유출될 이유가 없는데, 해외 승인 시도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게시글도 이어졌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망분리가

돼 있어서 결제 정보는 같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지기 전날 쿠팡에 결제수단으로 등록했던 카드로 300만원이 무단 결제된 사례도 보도되는 상황이다.

이외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잇따르고 스팸 전화가 하루에 여러 건 오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전날 현안 질의에서는 의원 비서관이 받은 쿠팡 사칭 스미싱 문자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쿠팡 계정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탈퇴는 PC 버전으로만 가능인데 6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료멤버십 와우멤버십은 10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거주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이 무성의해 탈퇴를 결심했다"며 "탈퇴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여서 까다로운 것도 불편했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30여개이고 회원 수는 50만명을 넘었다.

네이버 카페 중 두 곳의 회원 수는 각각 약 14만명, 12만명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위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시작됐다. 지난 1일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부산에서도 1인당 위자료 3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예고됐다.

여러 법무법인이 모집한 집단 소송에는 각각 수천명의 쿠팡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는 9일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쿠팡 "결제·로그인 정보는 보호"···소비자 불안은 '여전'

쿠팡 측은 이번 유출에서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보는 별도 관리돼 이번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이 정보 유출을 공개할 당시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유출 대상에서 빠져있었으나 이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켓직구 등을 이용하기 위해 쿠팡에 입력해둔 개인통관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통관번호 재발급도 급증하며 홈페이지 접속 지연 사례까지 벌어졌다.

다만 쿠팡은 개인통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DEC. 5th - DEC. 11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EASY MICROWAVE RECIPE

Limited time and feeling hungry? The easiest recipes to make your day quick, delicious, and satisfying are here: Soft Tofu Steamed Egg, Tuna Bibimbap, and Braised Thin-Sliced Brisket. 빠르고, 맛있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요리 레시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Pomegranate 석류 LB <b>\$2.99</b> BOX <b>\$19.99</b>	Mandarin with Leaf 잎 달린 만다린 LB <b>\$1.99</b>	Zucchini Green Squash 그린 호박 LB <b>\$0.99</b>	U.S.A. #1 Potato 감자 LB <b>\$0.49</b>	Stem Tomato 줄기 토마토 4 LB/BOX <b>\$4.99</b>	Longan 롱간 LB <b>\$2.79</b>	Taiwan Spinach 대만 시금치 LB <b>\$2.99</b>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7-11 CNT/BOX BOX <b>\$29.99</b>	Chinese Broccoli 중국 브로콜리 LB <b>\$1.79</b>	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 LB <b>\$1.79</b>	Korean Radish 한국 무 BOX <b>\$14.99</b>	Fuyu Persimmon 단감 LB <b>\$1.49</b> 19-22 CNT/BOX <b>\$17.99</b>	Napa Cabbage 배추 BOX <b>\$9.99</b>	Honey Tangerine 허니 텐저린 LB <b>\$2.49</b>

###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Ox Tail 생 소꼬리 LB <b>\$15.99</b>	Fresh Boneless Pork Loin Chops 생 뼈없는 등심 폭찹 LB <b>\$5.99</b>
Fresh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WHOLE PIECE/LB <b>\$3.99</b>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6.99</b>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FAMILY PACK/LB <b>\$2.99</b>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eye Steak 양념 벌집 등심 스테이크 LB <b>\$8.99</b>

###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b>\$7.99</b>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b>\$5.99</b>	Frozen Cleaned Cuttlefish 갑질 벗긴 갑오징어 LB <b>\$4.99</b>
RI WANG Frozen Fish Ball 리왕 피쉬볼 ALL VARIETIES LB <b>\$4.99</b>	SUHYUP Frozen Jeju Beltfish 수협 제주 은빛갈치 PRODUCT OF KOREA EA <b>\$7.99</b>

### SMART CARD MEMBER ONLY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with Glutinous Black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흑미밥 7.4 OZ X 12 BOWLS/PKG <b>\$12.99</b>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b>\$11.99</b>
NONGSHIM Shin Cup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작은컵 2.64 OZ X 6 CUPS/BOX <b>\$7.99</b>	NONGSHIM Tempura Udon Cup Noodle Soup 농심 튀김우동 소컵 2.6 OZ X 6 CUPS/BOX <b>\$7.99</b>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b>\$12.99</b>	HAIO Premium Seasoned Seaweed Flakes 해오름 밥도둑 김자반 1.41 OZ X 2 EA/PKG <b>\$2.99</b>	HAIO Dried Seaweed 해오름 완도 미역 7.05 OZ <b>\$4.99</b>	SEMPIO Chosun Naturally Brewed Soy Sauce 샘표 맑은 조식간장 31.45 FL OZ <b>\$3.99</b>	YASUDA Udon Japanese Style Noodles 야수다 우동면 2.75 LB (5 EA/PKG) <b>\$3.99</b>
PULMUONE Jjamppong Noodle Soup Kit 풀무원 직화 짬뽕 12.8 OZ <b>\$5.99</b>	PULMUONE Vietnamese Style Pho Noodle Soup 풀무원 베트남 쌀국수 11.2 OZ <b>\$5.99</b>	HAIO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소면 3 LB <b>\$3.99</b>	Q1 Make the Churros Mix 큐원 홈메이드 쥬러스만들기 8.46 OZ <b>2\$9</b>	MIKWANG Korean Style Popcorn 미광 돌아온 헝그리 강냉이 5.99 OZ <b>2\$5</b>
K TOWN Cacao Pie 케이타운 카카오파이 10.58 OZ <b>2\$7</b>	HAITAI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 해태 맛동산 10.58 OZ <b>2\$7</b>	COCOA LOCK Kimchi Container 코코아락 김치통 5.2 L/9 L/12 L - \$8.99-12.99 <b>\$5.99-9.99</b>	JAYEONCHERUM Clean Wet Tissue 자연처럼 키친 크린행주 (베이킹소다) 물티슈 80 SHEETS - \$2.99 <b>\$2.39</b>	SAENGONG Kitchen Soap 생활공작소 주방세제 GRAPEFRUIT/FERMENTED RICE WATER - \$4.99 <b>\$3.49</b>

##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천년 김치 千年的味道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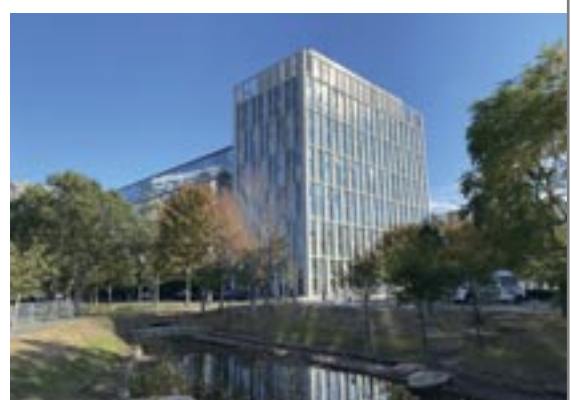
 <b>이사 이제봉</b> DIRECTOR 781.654.5281 <small>jj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hyu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sofin@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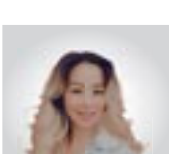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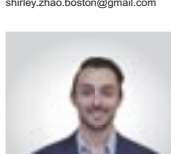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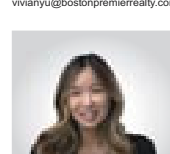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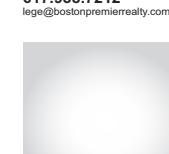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줄리 전</b> 978.494.2043 <small>juli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니키 박</b> 617.447.0591 <small>nikkiepark@gmail.com</small>	<b>피터 주</b> 617.780.7839 <small>thepeterjinateam@gmail.com</small>	<b>지나 최</b> 978.866.3248 <small>thepeterjinateam@gmail.com</small>	<b>이현주</b> 401.935.3397 <small>hyunju0921@gmail.com</small>
					
<b>사라 유</b> 617.838.5787 <small>sa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그레이스 정</b> 617.455.7710 <small>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황수진</b> 617.538.6973 <small>sujiwang1@gmail.com</small>	<b>마사 송</b> 213.503.0397 <small>marci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키 최</b> 413.507.1402 <small>mickichoi@gmail.com</small>	<b>손창배</b> 617.913.3369 <small>s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최진민</b> 617.877.0387 <small>jinho52@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영순</b> 781.800.3412 <small>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한혜숙</b> 781.999.1214 <small>hh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차민영</b> 617.515.1162 <small>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준균</b> 617.543.5728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메건 리</b> 404.641.5102 <small>meg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Tammy Woolfolk</b>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Nancy Wang</b> 617.230.9952 <small>nancywang6000@gmail.com</small>	<b>Shirley Zhao</b> 857.231.0316 <small>shirley.zhao.boston@gmail.com</small>	<b>Vivian Yu</b> 617.935.2713 <small>vivia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Xian Dole</b> 413.522.8979 <small>xianyu2022@gmail.com</small>	<b>Lu Jiang</b> 240.449.0117 <small>jianglbox@gmail.com</small>
					
<b>John Tran</b> 617.406.965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Rebecca Phu</b> 617.833.1088 <small>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chael Somma</b> 978.873.0076 <small>mik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nda Ta</b> 857.210.883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un Wang</b> 646.270.2923 <small>jun.w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ly Wang</b> 617.938.7212 <small>leg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Crystal Wei</b> 413.308.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빈센트 박</b> 201.446.8595 <small>vincent@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제이크 김</b> 781.956.0409 <small>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상현</b> 857.260.0434 <small>sang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mi Belanger</b> 413.237.1586 <small>mimiy111@hotmail.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 '계엄 1년'의 밤...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인 '응원봉'

**진보단체 집결 '평범한 시민의 혁명...내란외환 완전 종식'**  
**李대통령은 불참...태극기도 200명 모여 '계몽절'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울립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강추위에도 '응원봉'들이 가득찼다.

진보단체 1천741개가 소속된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천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애초 예상됐던 3천 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참석을 예고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 사정으로 불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위해 첩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청산'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참석자들은 1년 전 이날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의 힘을 기억하고 '내란'의 잔해를 넘어 사회 개혁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시민 유하영씨는 "혁명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이끈다는 것을 광장에서 배웠다"며 "다시 만난 세계"를 향한 기대를 기억하고, '윤석열 너머'로 함께 나아가자"고 외쳤다.

시민 이주원씨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이라며 "아직도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정당이 아무런 책임 없이 사회를 활보한다. 새로운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측은 결의문도 채택해 함께 낭독했다. "앞으로 완전한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행동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이들은 오후 8시 50분쯤 집회를 마친 뒤 약 1.5km 떨어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각양각색의 '응원봉'도 들었다. 촛불 모양의 발광 머리띠를 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을 쓴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집회에 온 김길동(54)씨는 "작년 이맘때 계엄이 일어난 뒤 여기에 있었다. 그때 복장 그대로 나왔다"라며 "1년이 다 되도록 윤석열을 비롯해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 통탄스럽다"고 했다.

손자들과 함께 나온 윤정옥(58)씨는 "오늘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이겨내서 기념하는 날"이라며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싶어서 왔다"라고 말했다.

강추위에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통패딩을 입고 털모자, 귀마개, 장갑 등으로 꽁꽁 싸맨 모습이었다. 은박 담요를 두른 이도 보였다.

일부는 집회를 마친 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가 본관 외벽에 투영되는 모습을 관람했다.

비상행동 집회의 길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의 '12·3 계몽절 집회'가 열렸다. 자유대학과 신자유연대 회원 등 오후 8시 기준으로 약 200명이 자리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

하다고 주장하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시각에 맞춰 계엄 선언문을 읽거나 '제2차 계엄을 선포한다'라며 퍼포먼스를 했다.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손수영(19)양은 "날씨가 춥지만 나라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바꾸려고 나

왔다"라며 "사람들에게 계엄의 합법성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 이모(32)씨는 "계엄을 불법이나 내란으로 규정짓고 국민 절반의 의견을 묵살해 항의 차원으로 나왔다"라며 "우리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라고 했다.

suri@yna.co.krkwang@yna.co.kr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이 개최한 '계엄 정당성 홍보 12·3 계몽절 집회'.



# 2025 제 21회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동요 합창제

장소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30 Wheeler Rd., Newton MA

## [행사 순서]

- 1:30-2:30 동해독도 공모전 시상식
- 2:00 동요 합창제 참가팀 접수
- 2:30 동요 합창제 시작
- 3:30 동요 합창제 심사 집계
- 4:15 동요 합창제 시상식



## [합창제 순서]

- |                         |       |          |
|-------------------------|-------|----------|
| * 축하공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백꽃} | ----- | 우리 한글    |
| 내슈아 한마음 한글학교 {쌍한마음즈}    | ----- | 산토끼 메들리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무궁화}        | ----- | 까꿍 놀이    |
|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두근두근}     | ----- | 도레미 송    |
| 보스톤 한국학교 {몽당연필 합창단}     | ----- | 아름다운 세상  |
| 우스터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합창단} | ----- | 소원 향아리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소나무}        | ----- | 앞으로      |
|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반짝반짝}     | ----- | 행복송      |
| 보스톤 장로교회 한국학교 {도담 누리}   | ----- | 왜 이렇게 덥지 |
| 푸르미 한국문화학교 {푸르미}        | ----- | 아리랑      |
| * 축하공연 메인 한글학교 {희망 등불}  | ----- | 종소리 울려라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연례 동요 합창제는 NE지역 한국학교들이 상호 교류 및 선의의 경연을 통한 한국정서 및 문화 배우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 및 후원 문의 : [kosane2025@gmail.com](mailto:kosane2025@gmail.com)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 '윗집사람들' 공효진 "영화제 관객들 실새 없이 웃어 신기했죠"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사이가 냉담해진 지 오래인 정아(공효진 분)와 현수(김동욱) 부부의 위층에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김 선생(하정우)과 수경(이하늬) 부부가 산다.

윗집 사람들을 부러워하던 정아는 어느 날 이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윗집 부부는 그들의 부부관계에 정아와 현수를 초대하고 싶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현수와 달리 정아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 들어나 보자"고 한다. 남편에게는 '손님으로 모신 이들이니 너무 예의 없게 굴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더한다.

윗집 부부의 자유분방한 말들에 한없이 당황하면서도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하는 정아의 모습에 관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다.

하정우 감독의 네 번째 연출작 '윗집 사람들'에서 정아 역을 맡은 공효진은 "저는 그저 사람들 대신 당황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오는 3일 개봉하는 '윗집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부부관계를 표방하는 윗집 부부와, 느닷없는 제안에 당황해하는 아랫집 부부의 진한 대화를 담은 '19금' 코미디다.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공효진은 "누구와도 나누기 힘든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 만큼, 관객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장인물들이 관객 대신 당황해하고 화내주는 구조"라면서 "듣기에 민망할 수는 있어도 흥미가 없을 수는 없는 내용이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공효진은 "관객들이 부담감이나 불쾌감, 반감 없이 영화를 보게 하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했다"면서 "그것을 위한 최선의 무기는 웃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쯤은 성공한 것 같다"면서 부산 국제영화제와 런던아시아영화제 등 영화 개봉에 앞서 관객들을 만난 후기도 전했다.

공효진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객석 여기저기서 실새 없이 웃음이 터졌다"면서 "배우 입장에서 신기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에서도 많이 웃으시는 걸 보고 신기했다"고 돌아봤다.

영화의 유머 코드가 이렇게 잘 먹힐 줄은 몰랐던 공효진은 "관객들이 하도 빵빵 터져서, 처음에는 '하정우 감독의 팬들이 많이 오셨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다"며 웃음 지었다.

폭소와 실소를 유발하는 대사들이 쉽지는 않지만, 정작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은 대사 암기와 연기에 몰입하느라 웃을 틈이 없었다고 한다.

공효진은 "배우들끼리는 '코미디인 줄도 모르고 찍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면서 "외울 내용이 많아서 쉬는 시간에도 항상 모여서 대사를 맞췄다"고 돌아봤다.

감독이자 주연 배우 하정우에 대한 애뜻함도 전했다. 하정우는 최종 대본이 확정되기 직전까지 주 5회, 아침 8시에 시작하는 '리딩 회의'를 반복하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고 한다.

공효진은 "(하정우가) 즉흥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사 한줄 한줄을 그렇게 고심해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쉬는 시간 없이, 미친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저런 사람이 감독도 하

고 배우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혔다.

one@yna.co.kr

# 신해철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AI 기술로 돌아온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고(故) 신해철이 생전 진행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스테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힘을 빌려 다시 팬들 곁으로 찾아온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고스트스테이션'을 재해석한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Ghoststation: the Next)를 오는 14일 유튜브로 처음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로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AI 기술로 만든 'AI 신해철'을 등장시킨다.

제작진은 "AI 신해철은 고인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가 남긴 질문·사유·가치를 계승해 2025년의 청취자들과 잇는 문화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AI 신해철은 프로그램 회차마다 시작 부분에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남긴 질문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AI 신해철은 고인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그의 철학적 기반을 참고해 현재 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고스트스테이션'은 신해철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심야 방송인데도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1~2003년 SBS 라디오에서 방송되다 2003~2007년 MBC 라디오에서 '고스트스테이션'이란 이름으로 청취자를 만났다. 이후 '고스트스테이션'이란 이름으로 돌아와 인터넷 방송(2007~2008년), SBS 라디오(2008년), MBC 라디오(2011~2012년)에서 방송됐다. 제작진은 '고스트스테이션'이 처음 방송된 SBS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는 주류 음악 프로그램에 서기 쉽지 않은 신인 뮤지션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해철이 생전 강조한 음악 생태



계 다양성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작진은 신해철의 생각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왜곡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준수했다고 밝혔다.

tsl@yna.co.kr

# ▶▶ Meet Me at

# the MFA ▶ Winter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 Hanukkah

- ▶ Thursday 12/18
- ▶ \$5 admission after 5 pm



**Exhibition**

## Martin Puryear: Nexus

- ▶ Through 2/16

**Exhibition**

##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 Final weeks
- ▶ Closes 1/19



#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2) 노후대책, 은퇴, 그리고 사랑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히 흐를 것처럼 느껴진다. 매일 아침 출근해 일하고, 아이들 학교와 학원 일정에 맞춰 하루를 보낸다. 어느새 세월은 흘러, 머리에는 흰빛이 돌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세월 끝에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은퇴 후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의 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에게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숫자나 잔고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대책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신을 돌보는 사랑, 배우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녀에게 집이 되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모든 것이 노후 준비 속에 담겨 있다.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살아가는 시기다.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손주와 놀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누는 평화로운 오후—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은퇴 이후의 행복이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꾸준한 준비와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미리 시작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꾸준한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인덱스펀드나 ETF처럼 안정적인 장기 투자 종목에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넣는 것이다. 복리의 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용한다.

둘째, 빚을 멀리하고 절제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고금리 부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소비를 통해 행복을 사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투자 실패로 바로 이어진다.

셋째, 돈보다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 친구와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재정적 독립만큼이나 감정적, 관계적 독립도 중요하다.

은퇴 설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모아야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이다. 100만 달러를 모았더라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하고, 절반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평안하다.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후 재정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까?’ 생각해 보자. 그것은 단순히 유산이 아니다. 평생의 삶에서 보여준 태도와 습관, 책임감과 배려의 유산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올바른 가치관이다.

노후대책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 ‘사랑’이다. 사랑은 말로도 전해지지만, 준비된 행동으로 더욱 깊이 전해진다. 오늘 하루의 작은 절약, 꾸준한 투자, 그리고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사랑의 표현이다.

은퇴란 삶이 멈추는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의 모습일 것이다. 추수감사절, 감사한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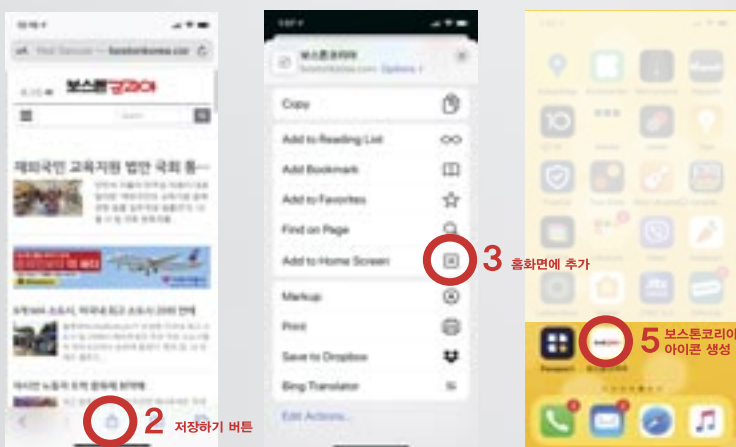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재외동포청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2025 YOUNG LEADERS SYMPOSIUM

PARENTS | CAREGIVERS  
STUDENTS

Join experts to hear their experiences, insights, and feats. The panel will explore pursuing a career in law, impact of bullying & hazing on a child's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tay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 Distinguished Panel



DA Marian Ryan  
Middlesex County  
District Attorney



Mia Yeung  
LMHC, LMFT  
Chair, KACL-NE



Sam Kim  
Lt. US Navy  
Chaplain



Esther Kim  
Law Student  
3:03 Prosecutor

## Key Discussions & Insights (Symposium is FREE)

- ✔ Bullying & Hazing
- ✔ Depression & Mental Health
- ✔ Underage Drinking or DUI
- ✔ Career in Public Service

RSVP: [Newenglandkacl@gmail.com](mailto:Newenglandkacl@gmail.com)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Fundraiser to follow at 7 pm.  
Student Ticket price \$50.



**20 December 2025 at 5- 7 PM**



More information  
617-299-0294



Visit our website  
[kacl-ne.org](http://kacl-ne.org)

# 스키즈, '빌보드 200' 8연속 1위...K팝 최다 기록 자체 경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앨범 '두잇'(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8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30일(현지시간) 빌보드의 차트 예고기사에 따르면 '두잇'은 앞서 7주 1위를 기록한 데일리 스위프트의 신보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을 제치고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2022년 '오디너리'(ODDINARY)를 시작으로 '맥시던트'(MAXIDENT), '파이브스타'(★★★★★), '락스타'(樂-STAR), '에이트'(ATE), '합'(合·HOP), '카르마'(KARMA)에 이어 이번 '두잇'까지 총 8장의 앨범이 연속으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이들은 이로써 '빌보드 200'에서 최다 1위를 기록한 K팝 가수라는 자신들의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또한 '빌보드 200'에 처음으로 진입한 앨범을 시작으로 8장의 앨범이 연속해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

역시 현지 가수를 통틀어 빌보드 역사상 스트레이 키즈가 유일하다.

빌보드는 "스트레이 키즈는 또한 이번 8번째 1위로 2000년 이래 이번 세기 가장 많은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그룹이라는 자신들의 기록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한 '앨범 유닛'(Album Units)으로 순위를 매긴다.

'두잇'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29만5천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Album Units)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앨범 판매량은 28만6천장으로 이번 주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SEA는 9천장이었고, TEA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빌보드는 "'두잇'은 올해 발매 첫 주로는 7번째로 많은 앨범 유닛과 4번째로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

록했다"고 전했다.

'두잇'은 스트레이 키즈가 '혁신을 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신념을 토대로 오늘을 즐기며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다.

더블 타이틀곡 '두잇'(Do It)과 '신선놀음'을 비롯해 '홀리데이'(Holiday), '포토북'(Photobook) 등 총 5곡이 수록됐다. 팀 내 프로듀싱팀 쓰리라차(방찬·창빈·한)가 전곡을 직접 만들었다.

이 가운데 '신선놀음'은 노랫말과 뮤직비디오에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세계관을 뽐내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앨범은 정규 혹은 미니앨범이 아닌 '스키즈 잇 테이프'(SKZ IT TAPE)라는 독특한 명칭을 내걸고 발매됐다.

멤버 방찬은 지난달 21일 소속사를 통해 "스트레이 키즈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운 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며 "이번에도 저희만의 스타일대로 특별하게 준비해 봤다.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장르와 메시지들을 각 곡에 담아



봤다"고 소개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전 세계 35개 지역에서 56회에 걸친 자체 최다 월드투어 '도미네이트'(domiATE)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어 앙코르 콘서트를 인천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열며 데뷔 7년 만에 국내 스타디움 공연장에 입성했다. [tsl@yna.co.kr](mailto:tsl@yna.co.kr)

12월 7일 - 12월 1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자신만의 리듬으로**

- 운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끌려가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 금전: 현상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큰 이익은 없어도 손해 보는 일도 없는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애정: 격렬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이어지는 감정의 교류가 있습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사랑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11, 12일 주의.

**소띠 | 풍성한 결실이 익어가는**

- 운수: 정성껏 가꾸은 일들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재산이 불어나는 즐거움도 누리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애정: 서로에 대한 확신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8, 9일 길일. 7, 13일 주의.

**범띠 | 보다 깊은 배려를**

- 운수: 주변이 소란스러워도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적 안정이 외적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 금전: 크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쓰지도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무리하지 마세요.
- 애정: 사랑은 표현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보다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7, 12일 길일. 8, 13일 주의.

**토끼띠 | 신중하게 결정**

- 운수: 방심하지 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처해야 합니다. 속에 숨어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금전: 갑작스러운 고정이나 수리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비 자금을 준비하고 큰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애정: 감정의 끈이 깊어지기 전에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즉각 대화를 나누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8, 11일 길일. 9, 13일 주의.

**용띠 | 자신 있게 도전**

- 운수: 일이 술술 풀리며 원하는 것을 수월하게 얻게 되겠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내 편이니 자신 있게 도전해 보세요.
- 금전: 로또 당첨처럼 예상하지 못한 황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가슴 벅찬 감동이 연속되는 시기입니다. 꿈꾸던 로맨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9, 11일 길일. 7, 10일 주의.

**뱀띠 |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는**

- 운수: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하게 잘 지낼 것입니다. 극적인 사건이 없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 금전: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좀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애정: 평범함 속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은은한 온기가 더 오래갈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0, 12일 길일. 8, 11일 주의.

**말띠 | 호흡을 맞춰가는**

- 운수: 앞만 보고 달리다가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움직이세요.
- 금전: 할인이나 세일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물건을 사기 쉽습니다. 카드보다 현금 사용으로 지출을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와 호흡을 맞춰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양띠 | 한 번 더 확인하고**

- 운수: 매사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금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출 항목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 애정: 상대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리지 마세요. 관대함과 이해심으로 사소한 문제는 넘어가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원숭이띠 | 함께 웃고 즐기는**

- 운수: 미소가 행복을 전염시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밝게 비추는 것을 기억하세요.
- 금전: 기분 좋은 용돈이나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일들이 모여 결국은 큰 일도 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 애정: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관계에 생기를 더합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닭띠 | 정신을 바짝 차리고**

- 운수: 방심한 틈을 노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너무 좋은 조건의 제안은 의심하고 계약서는 철저히 검토하세요. 어쩌구니없어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를 믿는 마음을 갖고 불필요한 의심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질투나 의심이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듭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

**개띠 | 꾸준히 앞으로 나가면**

- 운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좋은 속도로 흘러갈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 금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예상이 가능한 수입과 지출로 계획을 세워야 수월하게 됩니다.
- 애정: 무난하게 유지되는 관계에 만족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주는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돼지띠 | 다시 일어설 수 있는**

- 운수: 일어볼었던 상황이 녹아내리며 새로운 시작이 보입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 금전: 묶여있던 돈이 풀리거나 밀린 대금이 들어옵니다. 송풍이 트이면서 हाल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 애정: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관계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두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2일 길일. 11, 13일 주의.

# "시즌10도 가능해요"... 흥행 IP로 계속 달리는 시즌제 드라마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흥행력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한 시즌제 드라마들이 방송가에서 시청자를 사로잡는 '치트키'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첫 방송한 배우 이제훈 주연의 SBS 드라마 '모범택시3'는 국내 시즌제 드라마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2021년부터 방영된 이 시리즈는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무지개운수 팀원들이 억울한 피해자들 대신 사이타 같은 복수 대행극을 펼치는 이야기다. 시즌1과 시즌2에서 각각 최고 시청률 16%, 21%를 기록하며 연속 안타를 쳤다.

벌써 세 번째 시즌이지만 이번에도 반응이 심상찮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4회에서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1.6%를 기록하며 방송 2주차 만에 시청률 두 자릿수를 넘겼다.

실제 일어났던 범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사건, 매 시즌 더 강력해지는 빌런(악당)을 해치우는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 의뢰 받은 사건에 맞춘 김도기와 무지개운수 식구들의 다채로운 부캐(부가캐릭터) 변신 등에 힘입어 탄탄한 팬층을 형성한 결과다.

주인공인 배우 이제훈은 "시즌1·2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즌3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건 시청자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송사들이 시즌제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는 앞선 시즌을 통해 확보한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이 보장되고, 흥행이 검증된 IP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범택시3'의 연출을 맡은 강보승 감독은 제작발표회 당시 "모범택시는 시즌 1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메가 IP"라며 "세계관이 탄탄하고, 주인공이 피해자 대신 복수를 해준다는 직선적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전 시즌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의 중간 유입도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택시' 시리즈의 선례를 보며 첫 공개

당시 반응이 좋았던 다른 작품들도 잇달아 시즌제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서 온 무전'을 통해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세계관으로 '웰메이드'라는 찬사를 받았던 이제훈·김혜수·조진웅 주연의 tvN '시그널'(2016년)은 10년 만인 내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다.

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유나 작가의 실제 재판 사례를 극본에 녹여 최고 시청률 17.7%를 기록한 장나라 주연의 SBS '굿파트너'(2024년)도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방영을 계획하고 있다.

평범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설적인 협상가 신사장(한석규)이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의 tvN '신사장 프로젝트'(2025년)도 시즌2 제작을 논의 중이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매력적인 캐릭터, 탄탄한 세계관, 두터운 팬층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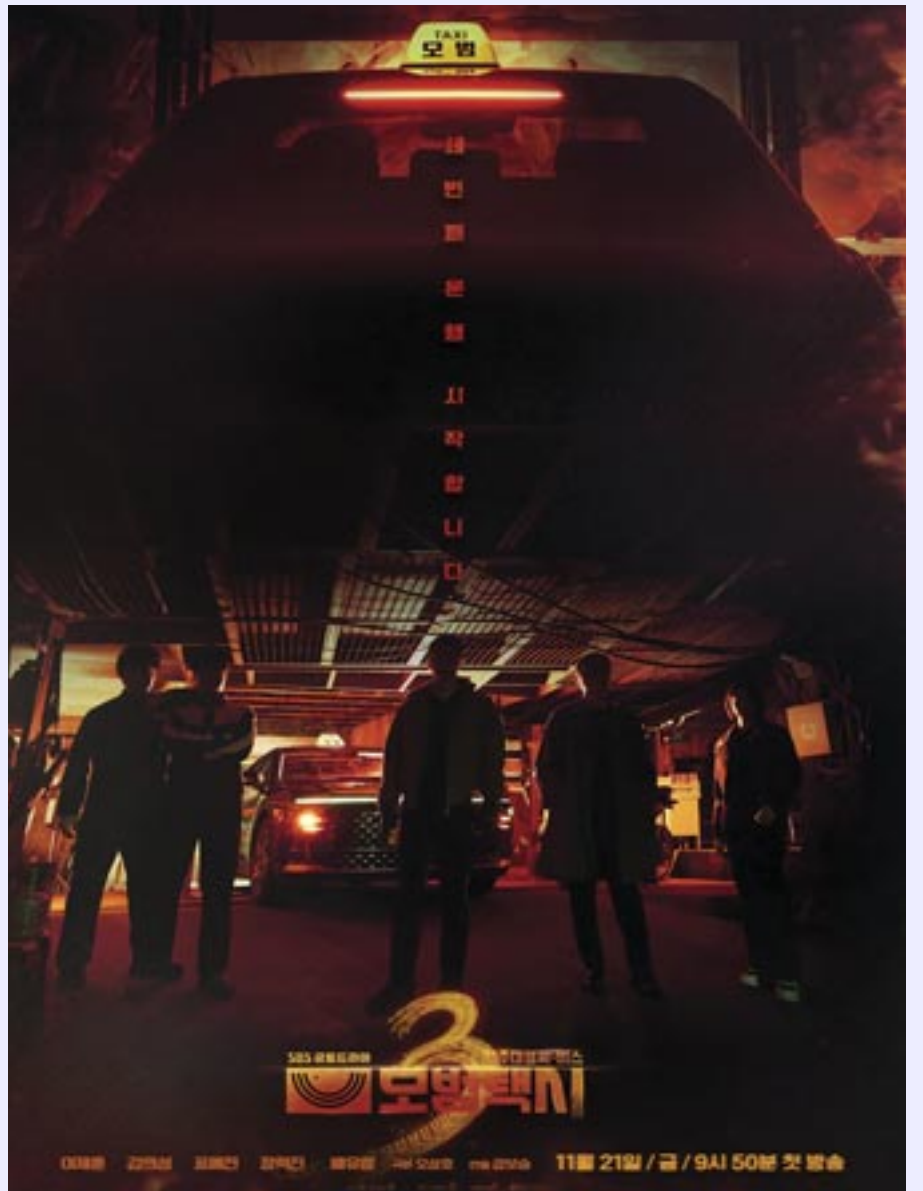
이들 모두 개성 강한 주인공이 매회 다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에피소드 형식의 작품들이란 점에서, 시즌제 제작을 위한 스토리 확장이 더욱 용이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방송가의 추세는 방송사보다 앞서 활발하게 시즌제 드라마를 제작해 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영향이 크다.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오리지널 IP를 활용한 시즌제 드라마는 OTT 신규 구독자 유입과 충성 고객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팬덤이 있는 원작 웹툰과 이를 잘 구현한 컴퓨터그래픽(CG), 주인공 유미 역을 맡은 김고은의 호연 등을 바탕으로 시즌2까지 제작됐고, 현재 시즌3를 준비하고 있다.

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의 사투를 그린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도 내년 공개를 목표로 시즌2를 제작 중이고, 현빈·정우성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디즈니+의 기대작 '메이드 인 코리아'



는 시즌1 공개도 전에 벌써 시즌2를 확정했다.

다만 모든 시즌제 드라마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즌제 드라마는 앞서 성공했던 시즌과 비교 대상이 되면서 평가가 더 까다로워지는 사례가 많고, 시즌3 이상의 장기 시리즈가 되면 스토리 확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실제로 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의 경우 16.8%의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지만,

최고 27.1%를 기록한 시즌2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나 '스위트홈' 역시 시즌3에선 다소 힘을 잃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결국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좋은 IP와 이야기의 확장성에 달려 있다"며 "아무리 탄탄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도 전작을 넘어설 만큼 흥미로운 스토리가 나오지 않으면 시청자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gahye\_k@yna.co.kr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 청룡서 빛난 화사·박정민에 호응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 영화를 최소 100번 이상 봤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이후 열흘간 수상작이나 수상자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뜻밖에도 가수 화사의 축하공연이었다.

배우 박정민과 함께한 화사의 공연 영상은 '하루 종일 영상을 보게 된다'며 후유증을 호소하는 댓글이 잇따르면서 28일 유튜브 조회수 554만 건을 기록했다.

화사는 지난달 발매한 신곡 '굿 굿바이'(Good Goodbye)로 시상식 2부를 시작하는 축하 무대를 장식했다.

'굿 굿바이'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박정

민은 객석에서 걸어 나와 화사의 무대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화사의 공연에 합류했다.

특히 화사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보면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박정민의 표정과 눈빛은 어른들의 우아한 이별이라는 노래의 내용과도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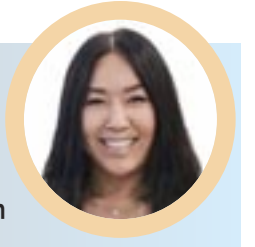
함께 지켜보던 배우들은 물론 생중계나 영상으로 함께한 관객들은 공연의 일부인지 실제 상황인지 헷갈릴 정도로 물 흐르는 듯한 연출에 환호했다.

이 같은 호응은 청룡 시상식 무대와 뮤직비디오 영상을 거쳐 박정민의 산문집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one@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 최선을 다하는 마음

길을 걷다 산책길에 나무들을 만나면 어찌 그리도 모양새나 색깔 나무껍질의 무늬마저도 제각각인지 모를 일이다. 멀리서 보면 모두가 '나무 색깔'이라고 여겨지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모양이나 무늬가 참으로 신기하다. 어느 나무들은 울퉁불퉁 잘려져 나간 모양처럼 고목도 아닌 것이 고목인 모양으로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훅 훅리는 느낌이 들게도 한다. 모두 남의 눈치가 아닌 각자의 생김새와 방법대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가 싶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제 색깔과 모양과 무늬와 목소리를 내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그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 마음의 병도 되고 몸의 병도 되는 것이라. 그것 또한 자신의 몫인 것이다. 곁에서 제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을 챙기는 일보다 우선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잘 보살피며 사는 일이 상대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일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고 얘기한들 얼마나 자식에게 마음이 전달될까 말이다.

아내가 아프다고 남편이 아프다고 안쓰러운 마음이야 있지만, 당자자의 그 아픔을 서로가 어찌 알겠는가 말이다. 아픈 사람의 서러움만 더욱 커진다. 몇 년전 늦가을 새벽 골프를 즐기다가 허리에 무리가 왔던지 다리가 아파 1년을 고생한 때가 있었다. 그 아픔은 남편이나 자식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다. 괜스레 짜증만 내고 속만 상하고 서운하고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나의 인식은 아주 많이 바뀌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선 나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기로 말이다.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어른들이 쉬이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식이 얼마나 많을까. 건강건강 듣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 몸 내가 잘 챙겨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누군들 아프고 싶어서 아플까.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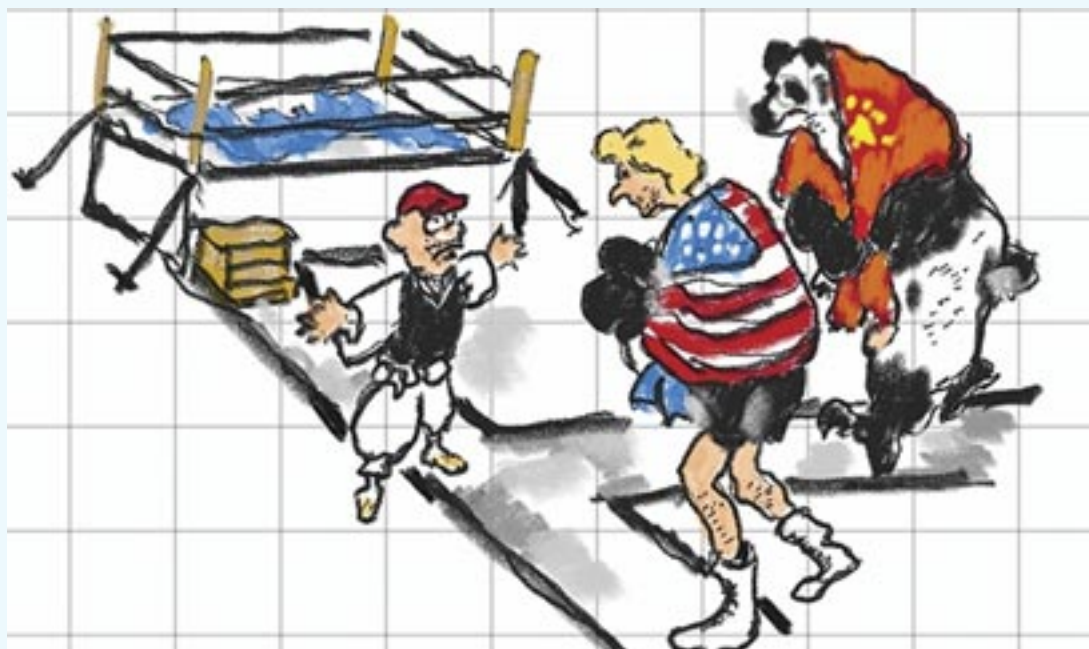
색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앓는 소리를 참아보려다가도 할 수 없이 새어나오는 신음을 어찌하란 말인가. 누군들 젊은 시절이 없었을까. 그 필필하고 건강했던 시절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늙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그 마음을 알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한테도 적당하게 하자. 그 무엇일지라도 오버하지 말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큼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다. 형제, 자매도 그렇지만 친구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돕게 되지만, 정도를 넘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잘하다가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친구는 서운함에 새로운 아픔의 곪이 생기는 것이다. 관계란 이렇듯 참으로 어려운 숙제임이 틀림없다. 다만, 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족한 것이다.

자식한테도 너무 바라지 않는 마음이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아이들이 자라 각자 제자리에서 살기에 여유로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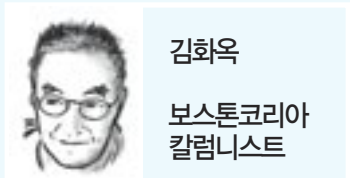
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부모들처럼 나 역시도 세 아이를 위해 극성도 떨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열정적으로 했던 그 시간과 돈을 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다들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지금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최선의 마음으로 족하면 그만일 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세 아이에게 들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부부도 서로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은 각자가 자기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다. 나이 들면서 서로의 건강으로 심려를 끼치는 것보다 미리 건강을 잘 보살피서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작은 크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은 내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다. 서로 적당한 운동도 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으면 최고일 것이다. 삶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만이 될 수는 없지만, 건강으로 가족에게 버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삶이길.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지리의 힘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지리의 힘. 책 제목이다. 아내가 구해 왔는데, 그 책을 읽었다. 읽기에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 듣고 배웠던 이야기를 엮어 냈기 때문이다.

책을 펴고 한국 챗터를 먼저 읽었다. 터의 첫 구절이다. '한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뿐이다. 전 세계에는 이 문제 말고도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일들이 널려 있다.' (책 페이지 161)

읽으며 섬뜩했다. 한반도 문제는 그냥 방치하는게 최선책이라

는 말이 놀라웠다는 말이다. 책은 이야기를 계속한다. '미국도 남한을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한 마음도 없다.'

이어지는 저자의 변이다. '남북 문제의) 해결책은 타협이겠지 만 남쪽은 이에 관심이 크지 않고, 북쪽 지배층 역시 이를 받아드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달 APEC기간이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만났다. 이어 중국지도자와도 회담했다. 회담결과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화기애애 했던 모양이

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심판이나 중재자가 아닌 힘있고 당당한 몸집을 가진 선수가 된 모양인 게라. 아직 부족한게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오래전 신문만평으로 실린 그림 한장이다. 그림은 수십년전 나온 삽화이다. 미국과 당시 소련과의 권투시합에서 한국이 심판을 맡는다는 설정이다. 눈에 띄이는 건 핫바지 저고리인 심판의 모습이고, 링위에 그려진 한반도이다.

이젠 한국의 심판 역할도 시들해졌다. 핫바지 저고리는 더이상

아닌바. 이젠 당당히 링위에 올라 잭과 펀치를 날리는 선수가 된 거다. 해비급이 아닌 경량급이다만 펀치하나의 강력하다. 잭도 일품인데, 발놀림 또한 경쾌할 거라 믿는다.

한편 APEC회담에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았던 모양이다. 책에서 언급한 또다른 구절이다. '몇몇 식자識者들은) 공공연히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날을 대비 하자고 한다. 그러나 정말 그날이 앞당겨진다고 해도 큰일이다. 그날에 대한 변변한 준비조차 없는 마당에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는 이

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말라는 충고이다. 이 역시 뒷맛은 개운치 않다. 마냥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인바. 정녕 남북한 문제에 비책은 없다는 말인가? 길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사도행전 2:28)

침) 책은 재미있게 읽었다. 그런데 몇몇 곳에 어색한 번역이 보였다. 번역가의 성의가 부족했던가. 아니면 그의 번역실력이 일천했던가. 그건 아쉽다.

#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 보스톤 **코리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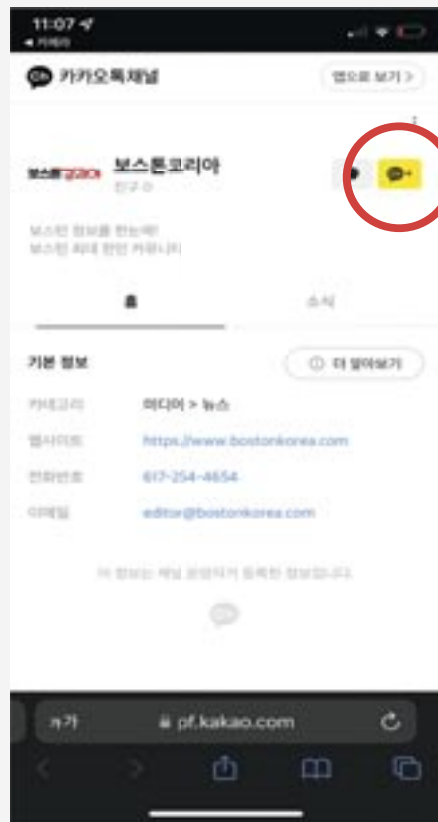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감정의 언어 '음악'은 트라우마 회복의 시작점"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요즘 정신건강의 학에서 관심이 높은 음악 치료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 성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자 한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순한 볼거리와 즐길거 리를 넘어 인간의 정신 회복을 이끄는 '감정 의 언어' 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 로 인기를 끈 영화 '케데헌(K-pop Demon Hunters)' 과 그 주제곡 '골든(Golden)' 은 예술이 인간의 내면에 어떤 방식으로 치유의 신호를 보내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

영화 '케데헌' 은 한국 전통 신화속 상징 인 호랑이와 까치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인간의 회복력을 표현한다. 호랑이는 용 기와 회복, 까치는 희망과 행운을 상징한다. 또

한 영화 속 주인공 루미의 실제 모델인 뮤지션 이재(EJAE)는 아이돌 가수의 꿈이 좌절된 뒤 음악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치유의 과정 을 걸어왔다. 그녀가 직접 만든 영화 주제곡 ' 골든' 은 이러한 개인적 상처와 극복의 여정을 담았다. 따뜻한 선율과 진솔한 가사는 음악 이 어떻게 자기 회복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상징한다.

뇌과학으로 본 음악의 치유메커니즘은 다음 과 같다. 음악은 단순한 청각 자극이 아니라, 인 간 감정을 조절하는 강력한 신경학적 자극으로 작용한다. 가사의 언어적 의미는 뇌의 왼쪽 측 두엽이, 음의 높낮이와 감정적 공감은 오른쪽 두정엽이, 리듬과 운동 반응은 소뇌가 담당한 다. 이처럼 여러 신경 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되 며, 감정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일어나 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경험과 상처를 바탕으 로 만들어진 '케데헌' 주제곡 '골든' 은 청 취자에게 '감정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을 일으켜, 트라우마 치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술을 통한 치유는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선다. 뇌는 예술적 자극을 통해 과거의 경 험과 현재의 감정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인지 적 틀을 형성한다. 이는 외상 경험으로 인해 왜 곡된 감정과 사고 패턴을 완화하고, 자신을 다 시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영화와 음 악은 이러한 심리적 재구성 과정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최근에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실시간 디지 털 연결을 통해 전 세계인의 정서적 공감을 더 욱 확장한다. 아이폰 간 실시간 방송(iPhone-to-iPhone real-time broadcasting) 등 기술적 소통 플랫폼이 정신 건강 회복의 네트워크로 활용된다. 이를 신개념 정신의학언어인 '글로벌 멘탈 자키(Global Mental Jockey, GMJ)' 로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예술은 단순 한 감상의 영역을 넘어 '정신적 상호 연결' 을 만들고, 개인의 아픔이 사회적 회복으로 확 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치유 문화' 를 형성하는 것이다.

음악과 영화, 그리고 기술이 결합한 이번 케

데헌 프로젝트는 예술이 인간 회복의 언어적 가치로서 지닌 치유의 본질을 재조명한다. 예 술은 인간의 마음 회복을 위해 가장 오래전부 터 사용해온 심리치료의 도구다. 지금이 시대 는 예술의 언어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치유 해 나가야 할 때이다.

"감정의 언어 '음악' 은 트라우마 회복의 시작 점"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 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shealth.us

**Hmart**  
hmart.com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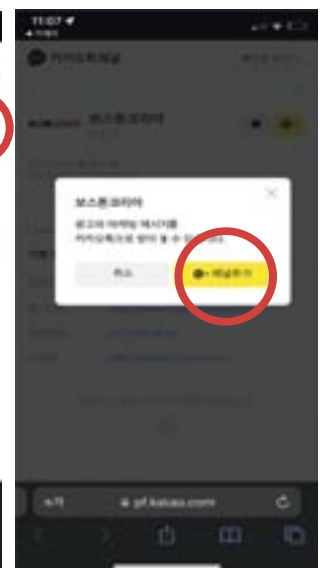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